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서

【 사순절 제4주】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이재훈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64. 기뻐하며 경배하세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완연한 봄이 되니 온갖 생명이 땅을 뚫고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도 겨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굳은 땅같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어 주시고, 생
명력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려 주십시오.

주님, 식목일을 앞두고 기도드립니다. 한쪽에서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나무를 심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개발과 편리를 위해 나무
를 베어 내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미세먼지가 가득하고 강과 바다는 검
게 죽어 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사 53:4,5	인도자
▲ 교 독 문 127. 사순절(4)	다 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2부 대표기도	안홍숙 장로
2부 응답 송	찬양대
2부 찬양 94.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다 함께
▲ 성경봉독 요 18:1-8	I. 인도자 II. 송형운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양	I. 하나님의 어린양 II. 갈보리산 위에	I. 마중물 찬양대 II. 청파찬양대

말 씀	내가 그 사람이다	김재홍 목사
거둠기도		다 함께
2부찬 양	517. 가난한 자 돌봐주며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재홍 목사
공동체 소식		김재홍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훌륭 위험을 감당하셨던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 이들 곁에 찾아가 그들이 기다리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다 함께:	아멘. 누군가 내게 찾아와 나의 그 사람이 되어 주기만을 바랐을 뿐 내가 먼저 그 누군가를 찾아가 그 사람이 되어 주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되어 주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재홍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쉼	낮집회 / 강의 : 이병석 목사 저녁집회 / 떼제 찬양과 기도회

■ 믿음으로 읽는 글 ■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는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낄 때 ‘기도’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는가? ‘기도’라는 말은 모든 생명의 근원과의 창조적인 연결을 뜻하기보다는 무력감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닌가?

중요한 사실은 기도에 관한 감정과 경험과 의문과 좌절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구체적인 고통과 연관된 것이라는 것이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없는 복음과 같다. 뭘가를 입증하거나 방어하려 하기보다는 단순히 모든 회의와 불안과 의문을 이 하나의 질문에 담아 그분께 내려놓는 것이 좋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며 정녕 모든 관계 - 자신과의 관계와 타인과의 관계-의 기초일진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며 진정 기도를 우리 존재의 축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대면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야기나 책을 통해서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갈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기도를 연약한 것,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사용하는 지원 체제 정도로 생각한다. 우리의 필요와 관심에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라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기도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분께 발돋움하는 것이다. 이런 기도는 우리를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게 한다. 친숙한 영토를 떠나 우리 마음과 생각의 좁은 반경에 갇힐 수 없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게 한다. 그러므로 기도란 위대한 모험이다. 새로운 관계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며 우리의 모든 계산과 예측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이다. 착각을 버리고 참 기도로 나아가기란 어려운 일이다. 참 기도는 우리를 거짓된 확실성에서 참된 불확실성으로, 모든 것을 지원받는 세계에서 모험의 세계로, 안전한 신에서 끝없는 사랑의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기독란 무엇보다도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다른 하나님을 향해 수용적 자세를 갖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마음이 우리보다 크면서도 깊이 감동받으시는 분이다.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 기독란 끊임없이 걷는 길이요 순례이다. 그 길에서 우리는 우리가 찾으려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뭔가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점점 더 많이 만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도달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새로운 분이라는 것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다.

기독란 모든 잘못된 소속을 떨쳐 버리고 자유를 얻어 하나님께만 속하는 행위다. 종종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강한 저항이 느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근원이자 목표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간 주변에 쌓아온 ‘안전한’ 구조물을 다 버리라는 하나님의 요구도 더 강해진다는 것을 깨닫는다. 기독란 그 정도로 혁명적 행위다.

기도는 새로운 길들을 보게 해주며 공중의 새로운 음악을 듣게 해준다. 기도는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곳에 머물 자유를 주는 우리 삶의 호흡이다. 새로운 지평에 닿는 길의 많은 표지판이 기도 중에 보인다. 기도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하루 일과의 필수요소나 어려울 때 도움의 출처가 아니다. 주일 아침이나 식사시간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기도는 삶이다. 기도는 먹고 마시는 것, 움직이고 쉬는 것, 가르치고 배우는 것, 놀고 일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든다. 기도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는 끊임없는 인식이다. 그분이 좀더 가까이 와서 당신이 주신 삶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라고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다.

- 헨리 나우웬, 「기독의 삶」(복있는사람) 중에서

■ 마음으로 읽는 글 ■

봄이 오는 길목에서

- 박영희

그냥 가도 좋으련만
회색빛 겨울 하늘은 기어이
어머니 머리에 내려앉아
흰머리 한올 심어놓고 가고

지리한 겨울
대지보다 먼저 당신의 품으로
씨앗을 품은 채
밭은기침 몇 번으로 지난 가을을 용서해버린
아버지는 파란 하늘에 파종을 하고

삼월이라 햇살도 고와
낮에 뿌린 씨앗들 밤이면 별로 돋아나
대지는 아침을 열고
하늘은 탄식을 걷어내고

■ 현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현금

강석남 고혜경 김경혜 김기석 김희우 김기철 김남종 오복순 김승현 김수진a
 김애순 김영란 김영옥 김영읍 김영호 김은옥 김정규 이종우 김정기 김정훈
 이진영a 김종락 박영신 김종성b 서이순 김필순 김호식 최원영 노연정 문홍일
 박석희 조항미 박재우 정충월 박영진 송남필 신영신 오미숙 오재형 임고운
 유지은 이미정 이미휘 이수자 이시경 이영미 이완구 이왕준 송상경 이은주
 이재삼 전정현 이재우 배이화 이준림 이창수 진선영 임승동 백혜숙 장기풍
 장병준 박소현 장원호 박성희 장현희 전병호 이은주 전아영 정영우 김지윤
 정원석 김현영 정은석 최정신 최병민 서지연 최진성 최영은 추헌영 하현철
 추성애 한기택 한나영 한상균 한양미 이진영b 허신열 홍복선

감사현금

권두리 김기석 김나름 김반야 김인석 이선희 김일재 김진혁 신다현 김태정
 김향자 문홍일 박노수 박재영 이현정 박창운 허정윤 변종복 김은영 송효진
 김민례 신영신 이준희 이주희 안미숙 유성애 유수진 이상도 이윤정 이현주
 임설희 임채진 이영희 전근우 정용구 이삼남 정학성 김현숙 채일석 최원영
 김호식 함정희 무명

생일감사현금

오송경 이지안

녹색꿈현금

권미숙 윤미경 윤수진 정효진 죄가윤 함정희

■ 집회안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1청년부	13:30	유치부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2청년부	13:30	청년회실			

■ 교회소식 ■

- 폐제찬양과기도회** :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30 교육관에서 폐제 찬양과 기도 회가 열립니다.
- 세례·입교신청** : 이번 부활절에 세례받거나 입교하실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은 4월 6일(토) 오후 2시, 입교교육은 13일(토) 오후 2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 사과나무, 복송아나무 분양신청** : 친환경 사과나무와 복송아나무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청파생협에 문의하십시오.
- 신앙실천** :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 달력에 있는 성경본문을 묵상하고 실천사항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사43:16~21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1부 이범석	공동기도	인도자	김재홍
2부 이범석	이재훈	허신열	이재훈

4월	1부 영접위원	이부용	현금위원	곽권희
	2부 영접위원	박홍재 박상규	이동천 신정훈	박미연 김태정
	2부 현금위원	하현철 최현옥		

오늘 식당 봉사	백혜숙 권현숙 김영읍 장현희 강희석 정현숙 이행진 서이순
다음주식당봉사	김윤정 최은미 김명하 강향미 오송경 오형일 윤성종 김재영
오늘설거지봉사	3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6여선교회 (4월 2남)
다음주설거지봉사	4남선교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